

경제

“1억5000만원 없어 폐업도 못합니다” 주유소 고유가에 경영난까지 아우성

과당 경쟁도 골치...광주·전남 업소 울들어 첫 감소

#. 광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55)씨는 주유소를 접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기름값은 계속 오르는 데 셀프주유소에 알뜰주유소까지 생겨 주유소간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장사를 해도 사실상 남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비용만 최소 1억5000만원이 들어 업무도 못내고 있다. 주변 상권도 침체돼 업종 전환도 쉽지 않은 상태라고 호소했다.

광주·전남지역은 휘발유 판매가격이 전국에서 낮은 지역에 속하는데도 경쟁까지 치열해 주유소 경영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하지만 폐업 비용도

만만치 않아 경영난에 허덕이면서도 영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 주유소 사장들의 고민이 크다.

17일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전남지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소속 주유소는 광주가 332곳, 전남이 954곳 등 총 1286곳으로 지난해보다 3곳이 줄었다. 광주·전남지역 주유소 수는 2010년 1260여곳, 2011년 1289곳 등 해마다 늘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주유소 수가 감소한 것이다.

또 업종 전환 등을 이유로 폐업한 주유소는 지난해 4곳, 올해 현재 1곳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지역 경우 폐업 주유소 수가 적은 것은 장사가 잘 되기 때문

이 아니다. 지역 주유소 업체는 광주·전남이 타 지역보다 주유소 영업을 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광주·전남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주유소가 많은데 휘발유 평균 가격도 저렴한 상대적으론 마진율이 낮기 때문이다.

주유소 당 인구 수를 살펴보면 서울은 1만5191명, 부산은 6996명, 인천은 6818명, 대구는 5590명, 대전은 5354명이다. 하지만 광주는 주유소 한 곳당 4397명, 전남은 2096명으로 다른 지역보다 주유소가 넘쳐난다.

이날 현재 광주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당 2006.62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전남도 1당 2018.53

원으로 16개 시·도 중 휘발유 가격이 5번째로 저렴한 지역에 속했다.

주유소 경영 환경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지만 폐업이 많지 않다. 이는 폐업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주유소 폐업을 위해서는 건물철거 비용과 토양정화비용 등 폐업비용만 최소 1억5000만원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주유소들이 폐업 대신 임대료 전환하면서 광주지역에서는 임대주유소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임영우 주유소협회 광주·전남지회 사무국장은 “광주는 폐업할 여력조차 없어 임대로 주유소를 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임대주유소 비율도 60% 이상되는데 2~3년 전부터는 임대주유소조차 경영난을 겪으면서 임대주유소가 1년으로 짧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



17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기아차 신차 'K3' 보도발표회에서 이형근 기아차 부회장이 모델들과 함께 K3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기아차 K시리즈 완성작 준중형 'K3' 출시

기아자동차 K시리즈의 완성작인 준중형 승용차 'K3'가 출시됐다.

기아차는 17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이형근 부회장, 윤선호 디자인센터장(부사장) 등 회사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3 보도발표회를 열었다.

이형근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기아차는 차별화된 디자인과 우수한 상품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그 중심에 K시리즈 승용차가

있다”고 말했다.

기아차는 2009년 프로젝트명 'YD'로 연구개발을 시작해 42개월 동안 총 3000억원을 투입, K3를 완성했다.

기아차(KIA), 대한민국(KOREA)의 대표 글자이자 '강함·지배·통치'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Kratos'와 역동성을 뜻하는 영어 'Kinetic'의 첫 글자 K에 준중형 차급을 뜻하는 3을 붙여 차명을 만들었다.

기아차는 올해 국내 시장 출시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중국, 미

국 등 전세계 주요 지역에 K3를 선보일 계획이다. 본격 판매가 시작된 2013년에는 국내 5만5000대, 해외 35만5000대 등 총 41만대, 2014년에는 국내 6만대, 해외 44만대 등 총 50만대를 각각 팔 계획이다.

판매가격(자동차세 기준)은 ▲디럭스 1492만원 ▲럭셔리 1677만원 ▲럭셔리 에코 플러스 1788만원 ▲프레스티지 1841만원 ▲노블레스 1939만원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알뜰주유소도 폐업...정부 정책 비상

석유공사, 내일 광주서 업주 간담회

기름값 인하 정책으로 추진 중인 알뜰주유소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달말 서울지역 알뜰주유소 1호가 문을 닫으면서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19일 오후 2시 KTX광주역 서석대홀에서 '알뜰주유소 업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알뜰주유소 정책 운용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를 조금 더 낮춰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입 석유를 알뜰주유소에 우선 공급해주거나 석유공사가 현재 추진하는 해외 직수입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것이다.

또 알뜰주유소에 대한 제휴카드 혜택을 기존 풀주유소 수준으로 확대해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일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전남 출장서비스

예탁결제원 광주지원

한국예탁결제원 광주지원은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전남 지역 10개 금융기관에서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출장 서비스를 전개한다고 17일 밝혔다.

미수령주식이란 투자자의 보유주식에 대해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으로 신주가 배당됐으나 이사, 사망 등으로 투자자가 받지 못한 주식을 말한다.

8월 말 현재 예탁결제원이 보

관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의 미수령주식 수는 680만주에 미수령주주는 17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수령주식은 시가 기준으로 1558억원이며 미수령주주는 2만3029명에 이른다.

출장접수 장소에서 접수할 때는 주주 본인의 신분증, 증권회사 카드, 예탁결제원이 보낸 안내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예탁결제원 광주지원(062-369-4733~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미기자 emlee@

광주디자인센터, 태풍 피해 중기 디자인 복구 지원

광주디자인센터(원장 장상근)는 17일 최근 잇단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광주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컨설팅을 통한 복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디자인센터는 각종 피해를 입은 공간이나 건물 외벽 등 복구 과정에 디자인 요소가 가미돼야 할 시설에 대해 실례를 파악하고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센터 내 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지원팀을 구성했다. 또 오는 30일까지 하남·평동·침산산단 등 광주지역 주요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과 도시 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컨설팅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미래전략팀(062-611-5077)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KDI 올해 성장률 3.6% → 2.5% 대폭 하향

내년 성장도 4.1% → 3.4%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성장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낮췄다.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게 좋고 내년 재정정책은 경기 회복을 위해 소폭 확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저성장 흐름의 장기화도 우려했다.

KDI는 17일 경제전망 수정지표 발표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성장률) 전망치를 종전(5월 20일) 3.6%에서 2.5%로 1.1%포인트 낮췄다. 3~4분기에는 전기 대비로 각각 0.5%, 0.8% 성장할 것으로 봤다.

내년 성장률은 종전 4.1%에서 3.

4%로 0.7%포인트 내렸다.

이번 하향 전망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탓에 수출 수요가 크게 둔화하고 내수도 부진해 당분간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이다.

민간소비는 올해 1.9%, 내년에는 3.4% 늘어날 것으로 봤다. 종전 전망치보다 각각 0.8%포인트, 0.6%포인트 낮아졌다.

설비투자는 올해 2.9% 증가에 그치지만, 내년에는 5.5%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작년(-5.0%)에 이어 올해 0.2% 줄고 내년엔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품 수출(물량기준) 증가율은 올해 2.7%로 둔화하고 내년 8.5%로 올라서며, 수입은 각각 1.8%, 7.7%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상품

수출 전망치는 종전치보다 올해 4.4%포인트, 내년 2.2%포인트 하향했다.

경상수지 흑자액은 올해 320억 달러, 내년 290억 달러로 종전보다 대폭 높였다.

올해와 내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 2.4%로, 실업률은 3.4%, 3.3%로 봤다.

KDI는 유로존 위기 장기화,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 등의 가능성을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KDI는 정책권고에서 “내년에는 중기계획상의 지출증가율(5.1%)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 둔화에 따른 수입감소를 용인하는 수준으로 설정해 경기둔화를 완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http://www.hankooktea.co.kr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고품질 녹차

친환경 다원

한국 제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703-4
T.222-2902, 3973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기능장과 60년의 제다

다양한 유가능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인의 차만 남품

名師의 高貴한 선물은 名인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식품명인지정서

강릉Set

다담Set

우전잠로

감사Set

제품문의 | 광주 차생원 062-224-2902 | 광주 신세계점 062-360-1232 | 광주 롯데점 062-221-1037 | 광주 현대점 062-510-7040 | 목포 차생원 061-281-1002 | 서울 차생원 02-730-2983 | 부산 차생원 051-256-7007-8